

5월 11일(화)

〈개막작〉 MOSAIC HARMONY : 조각그림 색칠하기
 낮 12시 중앙도서관 앞

〈영화〉 임마는 여자를 좋아해

(A Mi Madre Le Gustan Las Mujeres / My Mother Likes Women)
 Daniela Fejerman, Ines Paris / 스페인 / 2002년 / 96분
 저녁 6시 30분 위당관 B09

임마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임마의 커밍아웃을 듣게 된 딸들. 그녀들이 보이는 한바탕 소동. 사실 이 영화는 레즈비언인 임마의 고백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지만, 레즈비언 임마의 이야기는 그 주변인인 딸들이 겪는 혼란과 이해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좌충우돌 사건들은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을 자아낸다. 영화는 여성의 독립과 자아실현, 부모와의 갈등, 동성애 등 무거워지기 쉬운 문제들을 경쾌하게 풀어낸다. 또한 영화 속 살아있는 여성 캐릭터들은 꽤나 매력적이다. 레즈비언으로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찾아나가기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영위하는 모습 등 영화 속 그녀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review 중)

5월 12일(수)

〈여성주의 미술 워크숍〉 "욕망을 그리다" with 박송숙 미술치료사
 오후 2시~5시 / 학생회관 3층 푸른샘

〈포럼〉 "유령의 세계에서 온 소녀들"

: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소녀, 그 불안정한 발달함과 전복가능성에 대하여
 특히 (이대 여성학과 석사수료), 여왕 (명량한 페미니스트, 16대 총여학생회장),
 소녀사자야생파까지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연론 동아리원)
 저녁 6시 30분 / 광복관 B106호

5월 13일(목)

〈포럼〉 "4명의 여인들의 연애 이야기 - 그녀들이 월담한 이유는?"
 : Lifestyle로서의 다양한 sexuality 실천에 관한 페미니스트 포럼
 김신현경 (영메이니스트 문화기획단 "달과 입술" 편집, 술래 (연세대 사학과 대학원)
 이갑희실 (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이갑 (여성주의 자치연론 "두입술" 편집위원)
 저녁 6시 30분 / 공대 A013호

FACE! WOMEN'S DESIRE

여성,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에 반기를 들다
 2004.5.11(화) ~ 5.13(목)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기획단 / 박제된 섹스를 거부하다 -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
www.yonsei.ac.kr/~ysfem/ happyfem@yonsei.ac.kr



FACE! WOMEN'S DESIRE

2004.5.11(화) ~ 5.13(목)

여성,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에
 반기를 들다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기획단 / 박제된 섹스를 거부하다 -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
www.yonsei.ac.kr/~ysfem/ happyfem@yonsei.ac.kr

Face! Women's Desire

c o n t e n t s

- 〈여는글〉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FACE! WOMEN'S DESIRE
여성,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에 반기를 들다 • 1
- 〈개막제〉 MOSAIC HARMONY : 조각그림 색칠하기 • 3
- 〈영화상영〉 REVIEW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 4
- 〈워크숍〉 욕망을 그리다 - 여성주의 미술 워크숍 • 6
- 〈포럼〉 유령의 세계에서 온 소녀들
: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소녀,
그 불안정한 발달함과 전복가능성에 대하여 • 7
- 〈포럼〉 4명의 여인들의 연애 이야기 - 그녀들이 월담한 이유는?
: Lifestyle로서의 다양한 sexuality 실천에 관한 페미니스트 포럼 • 14



FACE! WOMEN'S DESIRE

여성,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에
반기를 들다

여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한다 것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각본은 대부분 남성의 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에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그 시선의 대상으로서 주체-남성에 의해 필요해지며, 확인되는 무엇으로 존재해왔다. 그 각본들 속에서 여성은 과잉 상품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욕망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여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것은 이 이데올로기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일이다. 더 이상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고 확인되는 존재가 아닌 그녀 스스로 존재하는 주체가 되는 일이다.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출처: 전영희 작품

또한 우리 사회에서의 섹슈얼리티는 단지 성(sex)에 관한 욕망만으로 한정되어 이야기되고 있다. 일상에서 떨어져 나온 은밀한 이야기거리로서만 섹슈얼리티가 말해짐으로서 한 인간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섹슈얼리티 실천은 간과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을 결정하고 말투를 결정하고 특정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은 여성임을 확인받기 위해 여성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한 삶의 방식을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여성이 그녀 스스로의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작업은 성(sex)에 관한 문화적 각본만이 아닌 일상적인 상역함과 상징체계 자체를 전복하고 재구성하는 일이다.

여성의 언어, 즐겁게 말하기

여성에게 주어진 각본 대부분이 남성의 언어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성적 존재로 발견하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들여다보고 재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여성의 언어를 길러낼 수 있는 여성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여성이 성적욕망을 드러내는 순간 원하지 않는 호기심 폭력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려야 심상한 사회에서 그 언어는 우선 방어적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섹슈얼리티 이야기하기는 고전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해오곤 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억압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방어적인 말하기에 치중하다보니 창작 확보된 공간에 담아낼 여성의 언어는 빈곤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외치는 부정의 언어보다는 우리의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즐거운 여성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삶의 방식으로의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주어진 규범을 코웃음치며 위반하고 무시하는 유쾌한 전복의 힘을 가지고 있다.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곳은 언제나 이성애중심주의적인 틀에서 빚어져왔다. 그것만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 듯이, 소년과 소녀가 만나 낭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환상과 믿음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식민화하는 가부장제와 효과적으로 공모하면서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존재를 차단하고 심지어 병리화한다. 여기서 이성애에 '포함되지 않는' 섹슈얼리티의 존재는 줄곧 '나머지'로, '중요'라 다 같은 것으로 취급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제의 공모는 세상을 연애를 하는 사람'만' 있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며, 이성애에게만 중요하고 고정된 상역함에 자신의 욕망을 담을 수 없는, 밀고 밀려 많은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성경, 자연의 섭리, 음악의 조화 운운하는 온갖 근거 아닌 근거를 들어 이성애중심이라는 강고한 틀을 유지, 재생산해 나가면서 '그들'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라는 세상 곳곳에 감속이 스며들며 ('그들'에게는) 쉬이 가시화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마지 공기처럼-을 누릴대로 누리고 있다. 또한 그들이 취하는 그 이익과 권력은 그들이 마련해놓은 정상성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가차없이 배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 다양한 여성의 욕망을 인정하고, 재구성하는 시작은 바로 이 지점. 이제껏 여성의 삶, 욕망, 섹슈얼리티를 단일한 것으로 묶어왔던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를 거부하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너무 낯설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 선언을 다시금 발화하는 것은, '그녀들'과 내가 '숨실'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급진적인 선언이자 정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를 거부하고 깨뜨리는 작업은 물론 페이지를 넘겨 다른 장을 시작하듯 단절적인 선언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가부장제 사회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여성의 목소리로 그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일상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이 곧 전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여성을 둘러싼 폭력에 대한 저항하는 그녀들의 이야기, 여성의 일상을 간섭하는 사회의 요구를 유쾌하게 조롱하고 있는 그녀들의 이야기, 경계를 밟고 있는, 넘나드는 그녀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여성의 삶에 강요된 단일성의 폭력을 견어낼 다양성은 시작된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꾸려나가 보자

개막제는 조각 그림처럼 다양한 색을 칠한 뒤 모아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그림 색칠하기' 행사입니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욕망의 격변을 겪고 다양한 여성들의 다양한 욕망을 드러내자는 문화제의 주제를 담아서 준비한 행사이지요. 11월 11일(월) 12시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액자를 깨고 날아오르는 여성의 그림에 나의 당신의 또 다른 색들을 채워 매력적인 화모니를 만들어 볼까요?

5월 11일(월) 낮 12시 / 중앙도서관 앞 광장

MOSAIC HARMONY : 조각그림 색칠하기

출처 (도록)Who owns women's bodies? (작가)Cristina Taniguchi (작품이름)Banshee!

액자를 깨고 한 여자가 몸을 던진다.

액자 안에서 그녀의 모습은 어땠을까. 어느 남성 작가의 그림이 그렇듯 '보여지기 좋은, 그러나 정작 그녀의 허리는 뒤돌린 자신의 포즈로 누워 있어야만 했던 것은 아닐까. 그녀 자신의 피부와 그녀 자신의 마음은 명든 무릎에서부터 붉은 욕망 노랑고 검은, 그녀 가진 색들로 채워져 있지만 화가의 붓은 그녀를 그저 새하얀 흰 물감으로 뒤덮어 놓았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생각한다. 나는 왜 이런 자세로 이런 색으로 뒤덮인 채 여기 누워있는 거지? 내 뒤의 이 잘 찢어진 듯 평온해만 보이는 침실의 풍경은 뭐지? 힘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젠 내가 아니야!

그녀가 잘 그려진 입가의 미소를 거두고 두 입술을 여는 순간, 폭 달은 모양으로 그녀의 입술을 고정해 두면 하얀 물감은 부스러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비틀린 허리를, 고정되어있던 팔 다리를 펼친다. 액자는 깨진다. 그녀가 그녀 자신의 몸으로 뛰어오르는 순간 액자는 깨졌다.

두 팔과 두 다리를 하늘로 뻗은 그녀는 날아오른다. 그녀 자신의 색을 되찾는다.

그녀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다. 잘 만들어진 미소가 아니지만 자유로워 보이는 표정. 그녀가 벗어 던진 액자는 깨어지고 흔들리며, 그제야 그 평온하던 침실도 가면을 벗는다. 색과 사물들은 그녀가 느끼는 그대로 - 즐겁게, 음울하게, 매력적인 혼란으로 뒤섞여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혼자자 아니다.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그녀가, 또 다른 색으로 날아오르며 액자를 벗어던지고 있다. 그들의 시선을 위해 고정되어 있기를 거부한 그녀들이 만들어낸 매력적인 혼란들의 하모니.

그녀들의 몸짓과 더불어 자유로워진 공간에는 더 많은 색들이 피어날 것이다. 액자를 벗어던진, 수많은 그녀들의 색으로 그 공간은 채색된다. MOSAIC HARMONY.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by 모란

(A Mi Madre Le Gustan Las Mujeres / My Mother Likes Women)
Daniela Fejerman, Inés Paris / 스페인 / 2002년 / 96분

5월 11일 (화) 저녁 6시 30분 / 위당관 B09호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엄마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엄마의 키핑아웃을 듣게 된 딸들. 그녀들이 벌이는 한바탕 소동. 사실 이 영화는 레즈비언인 엄마의 고백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레즈비언 엄마의 이야기 보다는 그 주변인인 딸들이 겪는 혼란과 이해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보면, 성 소수자 담론에서 유난히 호들갑을 떠는 이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임을 환기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첫째 딸, 엄마의 성적 취향이 자신에게 유전된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둘째딸, 레즈비언인 엄마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막내딸까지 영화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딸들을 서사의 중심에 놓는다.

타인의 시선, 질투, 오해로 인해 엄마와 그녀의 애인 엘리스카를 헤어내려는 딸들의 모의(?)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좌충우돌 사건들은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을 자아낸다. 영화는 여성의 독립과 자아실현, 부모와의 갈등, 동성애 등 무거워지기 쉬운 문제들을 경쾌하게 풀어나간다. 또한 영화 속 살아있는 여성 캐릭터들은 꽤나 매력적이다. 레즈비언으로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찾아나가기,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영위하는 모습 등 영화 속 그녀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더해서 영화엔 이혼한 아내의 키핑아웃을 지지하는 아버지와 애인의 어머니를 위해 영혼한 사람과 결혼해주는 남자친구까지 등장한다)

혹자는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영화를 두고 모든 일이 너무 슬슬 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가 갖는 미덕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편약.’ 라는 가정법이 현실 반대적 상황에 기반하는 숙명적 결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상상이 언제나 무효한 것은 아니다. (종종 그러한 미덕은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력을 발굴시키기도 한다.)

현실 너무 존재하는 가능성의 미덕을 몇 가지 들여다보면, 둘째딸 엘비라가 보여준 모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엄마의 키핑아웃 이후 엘비라는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그러한 엘비라가 레즈비언인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게다. (이는 어떠한 감정이입 없이 소수자 담론을 말하는 것은 분명 넌센스란 사실과 맞닿아 있다.) 또한 엄마의 애인인 엘리스카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는 엘비라를 보면서, 우리는 (사회가 정해놓은) 성 정체성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것인지를 알게된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작위적이고 심지어 이태올로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영화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성애적 사랑에-편견을 적고 게다가 공식화되어버린- 갈등여지,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새로운 관계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친밀성의 여지를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결혼식 장면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미덕이다. 영화 속 임시방편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결혼은 현실에서조차 조차 껌대기만 남은 형국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법과 사회에 대한 조롱은 전통적인 가족의 틀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보여준다. (항상 그렇지만 법은 언제나 인간 치만치 뒤에 서 있다.)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정상적’ 남녀 커플의 관계를 보기 좋게 ‘배반’ 하는 그들의 모습은 통쾌하기까지 하다.

영화를 환상이라고 -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욕망- 정의한다면 결말과 대비되는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리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환상의 재현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억한다면 말이다. (법과 관례는 원래 등에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는 주체가 인간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인정, 다양한 가족, 관계들은 더 이상 환상속이 아닌 현실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각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하지 않을까? 성 정체성 혹은 친밀성의 문제가 타인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자리매김한,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우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여성의 욕망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그림 그리기 워크샵입니다. 미술 심리 치료사인 박승숙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찰흙, 지점토, 콜라주, 수채화물감, 아크릴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 내 욕망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만끽해 봅시다.



5월 12일(수) 낮 2시 / 학생회관 3층 by 푸른샘 욕망을 그리다 : 여성주의 미술 워크샵

나의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사회의 섹슈얼리티.

"나의 섹슈얼리티가 무엇이나 하면..."이라고 말을 시작했단,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일쑤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나의 욕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
계속 소리 내어 말해볼 수록 아득히 멀어지는 것 같은 '욕망'이라는 것.

진실된 내 이야기, 욕망, 섹슈얼리티가 내가 이제껏 보고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에 가려져 제자리를 찾기 힘들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 머리 속,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 느낌들을 표현해보자.

여러 가지 형상과 색깔로 달을 수 있는 곳까지 나의 욕망을 찾아보자.

... 나의 욕망 그리기.

유령의 세계에서 온 소녀들

: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소녀,
그 불안정한 발달함과
전복가능성에 대하여

5월 12일(수) 저녁 6시 30분
광복관 B106호

독자 (이대 여성학과 석사수료)
여강 (명강한 페미니스트, 15대 총학생회장)
소녀사자야생까지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주아생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소녀(girl)가 아니라
분노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소녀(grrrl)이다"

- '라이엇 걸(riot grrrl)' 운동을 통해 본 저항적 주체로서의 소녀
by 독자 (이대 여성학과 석사수료)

1. 여성성의 하위범주로서 소녀다움

소녀들이 TV를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이미 오래다. 화려한 춤과 지나치게 조숙한 혹은 섹시한 옷차림의 스타로서, 혹은 그들에게 갖가지 색깔의 풍선을 흔들며 화답하는 팬으로서 10대들은 TV 안팎을 넘나들며 대중문화의 풍경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요즘 대중매체 안의 소녀들은 예전과는 다른 다양한 활동(을)을 보여주는 듯 하다. 첫 키스도 못 해본 여고생은 어린 신부가 되고(‘어린신부’), 열여덟 날라리 여고생은 엘리트 점사 남편 내조하기 바쁘며(‘낭랑 18세’), 유령여왕 같 돈을 마련하는 두 명의 여고생들은 원조교제를 통해 기꺼이 중년 남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한다(‘사마리아’). 심지어 10살도 채 안되어 보이는 꼬마 소녀마저 마스크라가 눈물에 번진 모습으로 “오늘밤에 그대여 와요”라고 노래한다(이수영 ‘꿈에’ 뮤직비디오). 더 어리고 더 ‘순진한’ 여자를 욕망하는 남성들의 편타지는 성인 여성의 역할을 하는 소녀의 몸을 요구한다. 소녀다움과 성숙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불가능한 임무 속에서 소녀들은 점점 더 어른스러워지고 성인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노력한다.

한편, 요즘의 거리는 어딜 가나 핑크의 물결이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꽃분홍색 애나멜 구두가 거리

유령의 세계에서 온 소녀들

를 확보하는가 하면 짧은 주름 치마에 분홍색 재킷을 입고 무지개빛깔의 귀걸이를 한 여자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최근의 트렌드로서 소녀같은(girlish) 패션은 소녀다움(girliness)이 성인 여성에게 기대되는 여성성(소위 '페미닌함')의 하위범주로 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제 성인 여성에게 소녀다움은 미성숙함의 상징으로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할 특성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스타일로서 언제든 착용할 수 있는 가면이 되었다. 5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들이 하루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 파마를 하고 정장을 사고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면, 지금의 대학 신입생들은 분홍색 신발에 분홍색 치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스타킹을 신고 소녀로 남아 있으려 한다. 이제 소녀다운 것은 곧 페미닌한 것이다.

2. 소녀의 이중적 취약성

그러나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이러한 소위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소녀다움은 우리에게 일종의 암묵적인 금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공주병으로 찍힐 각오를 하지 않은 다음에야 누가 꽃분홍색 애나멜 구두를 신고 짧은 주름 치마에 분홍색 재킷을 걸칠 수 있었겠는가. 소녀답다는 말은 미성숙하다, 유치하다, 감정적이다, 철없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여성 작가들에게 흔히 가해지는 비난 중의 하나는 '소녀들의 일기장이나 나을 법한 글'을 쓴다는 것이었고, 대중음악의 소녀 팬들은 무비판적으로 '오빠'를 따라다니는 생각 없는 '백순이'로 매도되었다. 최근에는 당당한 10대들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떠오르는 동시에 제도교육의 문제점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는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소녀다움은 여전히 미성숙함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오히려 소녀에 대한 정형화된 신화적 이미지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열광적으로 수용되면서, 기존의 소녀다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차별화된 소비 전략의 하나로 포섭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소녀들에게 있어 여성으로서의 타자성은 미성년자로서의 타자성과 겹쳐지면서 가부장적 권력에 이중으로 취약한 주체가 구성된다. 나이 어린 여자는 남자들에게 가장 만만한 존재이다. 소녀는 성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남성) 성인의 시선에 의해 성적 주체로서 소녀의 섹슈얼리티는 미래에 속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탈성애화되는(desexualized) 동시에, 순결하고 의존적인 여성성을 구현하고 있는 성적 대상으로 에로티지화된다(eroticized).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소녀의 이중적 취약성은 남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라는 판타지와 함께 다른 남성에 의해 아직 '미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섹슈얼리티라는 판타지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처럼 취약하고 의존적이고 어리석은 존재로서 소녀의 정체성에 전면적으로 도전한 소녀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라이엇 걸(riot grrrl)이다.

3. 라이엇 걸(riot grrrl), 분노하는 소녀들

"우리 소녀들은 네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 펑크 록 창녀들은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의 자지가 필요치 않아! - Don't Need You (Bikini Kill)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인디 록(indie rock)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펑크(punk) 밴드 비키니 킬은 위의 노래 가사에서 '소녀'와 '펑크 록 창녀'를 같은 주체로 놓는다. 연약하고 의존적이라고 간주되는 소녀들은

에 소녀(girl)가 아니라 분노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소녀(grrrl)이다"

남성('you')의 도움과 애정이 필요치 않다고 외치고, 자신의 성적 '서비스'를 남성 구매자에게 팔아야 하는 '창녀'들도 남성('you')의 성기가 필요치 않다고 외친다. 남성이 필요 없는 '우리(we)', 소녀이기도 하고 창녀이기도 한 '우리'는 누구일까?

1991년 미국에서 펑크 록을 하기 위해 밴드를 결성하고 공연을 시작했던 여성 뮤지션들은 스스로를 라이엇 걸(riot grrrl)이라고 칭했다. 이들 여성 뮤지션들은 남성중심적 대중음악권에 도전하며 여성들의 공간을 주장했던 70년대 페미니스트 및 레즈비언 뮤지션들의 전통과, 신화화된 록 및 기성 세대에 대한 저항의 정치를 보여준 펑크의 전통에서 출발했다. 이들이 스스로에게 붙인 라이엇 걸이라는 명칭은 남성에 의해 타자화되는 가부장적 여성성에 대한 저항과 '성인'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단계로 간주하는 젊은이에 대한 관습적인 이미지에 대한 저항을 동시에 담고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인 남성에게 의해 주어진 정체성인 소녀(girl)와 단절하고 오르렁거리며(growl) 분노하고 저항하는 주체로서 스스로 주조해낸 정체성인 소녀(grrrl)로 재탄생한다. 이들 라이엇 걸 밴드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칭하면서 노래 가사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팬잡지에 기고하는 글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그들의 가사는 강간, 낙태, 아동 학대, 근친상간, 다이어트, 외모, 성적 욕구 등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솔직한 고백으로 채워졌으며, 스스로를 혼자라고 생각하는 외로운 소녀들에게 정서적인 지지감과 연대감을 제공했다. 또한 라이엇 걸 밴드들은 펑크 씬과 공연 문화의 남성중심성을 문제화하고 여성들이 펑크 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girl을 grrrl로 재탄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선택한 포스트모던한 저항의 방법론인 패러디는 라이엇 걸 밴드들의 퍼포먼스와 이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밴드 홀(Hole)의 커트니 러브가 탈색된 구발에 속옷 패션을 소녀적인 레이스의 결합을 통해 소녀의 '순진함'과 '창녀'의 '천박함'의 이분법을 문제화한다면, 비키니 킬의 캐슬린 해너는 립스틱으로 'slut'이라고 쓴 배를 드러낸 채 무대에 오름으로써 '창녀'의 개념을 남성적 이중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위반적 섹슈얼리티로 전유한다. 이들은 grrrl이라는 새로운 소녀의 정체성을 택했지만 그 패러디 과정에서 기존의 소녀, 창녀, 여성성에 대한 남성중심적 스테레오타입을 모두 교란시키면서 단일한 혹은 고정된 정체성의 경계를 해체한다.

4. 구별의 정치로서 소녀 정체성

그러나 소녀라는 정체성은 세대의 구별을 통해 가능한 정체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소녀들은 여성과 미성년자라는 이중적 취약성을 가지는 동시에 미성년자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자유와 열등, 저항이 용인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영국의 클립문화를 연구했던 사라 쏜튼(Sarah Thornton)은 젊은이들의 하위문화를 "사회적 연명화에 대한 미학적 저항"으로 개념화한다. 젊은이들은 하위문화에 참여함으로써, 성인이 됨에 따라 계층화된 사회 내 자신의 위치를 따라야 한다는 공포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계급, 수입, 직업의 결정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원하는 자원은 연명, 성별, 섹슈얼리티, 그리고 인종적 죽을 총동원하는 대안적인 위계질서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녀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성인 여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는 사라 쏜튼이 말한 '사회적 연명화'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인 동시에 규범적 여성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이다.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줌마가 있다는 서글픈 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들에 따라 탈각되는 여성성은 나이든 여자들에게 생산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거의 남겨놓지 않는다. 분명 젊은 여자라는 점



은 사회적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의 성형수술 열풍 역시 여성성의 복원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나이들과 여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반면 소녀들은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성의 규범으로부터 크고 작은 일탈이 허용된다(중, 고등학교때는 남자같이 털털하게 지내다가 20대가 되어 갑자기 '페미넌'해진 여자친구들을 생각해보자). 나이드은 여자들은 한때 '여성'이었던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지만, 소녀들에게는 언젠가 '여성'으로 변모할 수 있는 (필어먹을) 미래로 끊임없이 접근하기 때문이다.

사라 쏜튼의 논의를 라이엇 걸에 적용해보면, 라이엇 걸이 성별, 섹슈얼리티, 계급, 인종에 따른 위계질서에 저항하기 위해 동원한 대안적인 자원은 세대 혹은 나이 구분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소녀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의미화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기존의 사회 체제에 적용해 유연성을 잃어버린 성인들과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소녀인 자신을 분리하는 구별의 정치학을 통해서였다. 그들에게 구세대 페미니즘(페미니즘의 제2물결)은 피해자로서의 단일한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피해자 페미니즘(victim feminism)'으로서 단절해야 할 유산이다.

5. 무엇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라이엇 걸의 정치성이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몇몇 여성 밴드들의 이미지 전략에 그치지거나 단순히 소녀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전유하는데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재전유를 통해 어떤 공간과 변화를 만들어 나갔는가이다. 라이엇 걸 밴드의 소녀 팬들은 스스로를 라이엇 걸이라고 칭하며 수많은 팬잡지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다이어트, 강간, 인종차별주의 등을 주제로 하는 워크샵을 조직하면서 느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다. 80년대 미국을 휩쓸고 지나간 신보수주의와 페미니즘에 대한 거대한 반격(backlash)의 흐름 속에서 소녀들의 네트워크는 아동 학대,데이트 강간, 다이어트 등에 대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펑크 록 씬 안에서는 내부의 남성중심적 문화 양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록 씬 밖에서는 미국의 보수주의의 물결에 죽어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는 점, 소녀운동으로서 라이엇 걸의 저항적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이엇 걸 운동을 통해 형성된 소녀 주체가 이후 노 다웃(no doubt)이나 스파이스 걸스(spice girls) 등에 의해 차별화된 상품 코드의 하나인 걸 파워(girl power)로 전유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누가 새로운 저항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는 출발점일 뿐이다. 차세대 저항의 주체가 소녀가 되어야 할지 할머니가 되어야 할지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이다. 무엇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소녀는 저항의 주체도, 마케팅의 타겟도 될 수 있다. 더욱 더 특화된 소비자 집단을 분류하고 발굴하는 것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가.

참고문헌

- 이동연 편,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 문화과학사, 1996
 Bayton, M. *Frock Rock : Women Performing Popular Music*,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Rosenberg, J. & Garolalo, G. 'Riot Grrl : Revolutions from Within', *Signs :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23, no.3, 1998
 Wald, G. 'Just a Girl : Rock Music, Feminism,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Female Youth', *Signs :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23, no.3, 1998



분홍이 너무해 - 유치한 이야기 by 여랑

사실... 문제는 매우 사소한 것이었다. 대학에 와서 갑자기 '유치한' 하고 '제 나이에 맞지 않은' 옷들이 입고 싶어진 것이다.

어린 시절 '여자색'의 대표였던 '분홍색'을 한 번도 내 것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왜냐! 양성평등을 나름대로 자녀교육에서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던 우리 어머니 덕분이다. 난 그래서 그 유치한 분홍색 하늘하늘한 옷을 입는 대신, 검은색 군청색류의 군더더기 하나 없는 - 그 흔한 리본이나 꽃 장식도 없는 - 옷들만 입어야 했다.

어쨌거나 엄마의 교육방침으로 나는 그토록 다니기 싫었던 용변학원까지 다니면서, -사실 난 발레를 배우고 싶었다- 크고 또박또박한 말투로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발표할 줄 아는 '여자에 걸지 않은'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 커다란 리본을 묶고 다니는 여자애들을 '여자에 걸다고 싫어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왔다. 대학에 들어와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을 사랑하게 되면서, 재미있게도 나는 이와 동시에 유치한 관심을 사랑하게 되었다. 형형색색의 유치한 프린트가 되어있는 티셔츠들과 엉뚱하게 놓여져 있는 레이스와 리본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나이를 측정하기 어려운 양 갈래 머리와 볼을 빨갛게 칠하는 화장을 즐겨하게 되었다. 흔히들 귀여워는 해 주되 인정해주지는 않는 '여성스럽다'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갖게 된 것이다.

게다가 단지 '여성스러운' 것이 아닌, 매우 '어리고 유치한' 소녀스러운 것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는 내가 '성인여성'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욕망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성인여성'이라는 성적인 대상과 어머니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로부터 저 멀리 달아나고 싶은 혹은 비껴서 있고 싶은 욕망이다. 한편으로는 '나이 어린 여자' - 사실 '나이 어린 여자'는 언제 어디서든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 가질 수 있는 자원들을 부동력받고 싶은 욕망인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은 '여성운동'을 한다는 너는 왜 '그런' 차림으로 다니느냐고 비난 혹은 의문의 시선을 보낸다. 여성의 상품화에 반대한다는 네가 왜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묻기도 한다. 사실 그 이유는, 취향이라는 단어가 파편화된 개인의 단편적인 욕망정도로만 일하지 않는다면, '취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내가 '여성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코드로 읽혀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사실은 정치치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작년 한 해 '총여학생회장'이라는 권력(?)을 갖게 되면서 나의 복장에 대한 문제는 더욱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회장님'을 찾으러 오시는 여러 하내의 사람들은 나를 '회장'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총여학생회장' 혹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 혹은 '여대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된 이미지를 마구 흔들어 놓는 것은 사실 곤란하면서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한계가 있다. 이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적당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마냥 무시당하기 딱 좋은 상태에서도 무시당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맘 놓고 유치함을 뽐낼 수 있기도 하다.

언제까지 내가 이라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마 그리 오랜 시간이 남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나의 욕망을 내가 긍정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내 삶에 있어 힘이다.



소녀, 그 불안정한 발랄함에 대하여

by 소녀사자 아생씨가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지식언론 쥘리앙스 jouissance.pe.kr)

내가 소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우습게도 대학에 와서였다. 모두다 나를 소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의 나는 자신이 소녀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소녀다움에 전혀 부합하는 인물도 아니었다. 나는 어린 여자였지 소녀와 같은 멜랑콜리한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 잘 웃고 잘 마시고 가끔은 상처도 받는 그런 여자에 정도가 딱 적합했다.

내가 소녀에 대해 뻔치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판타스틱 소녀 백서'라는 영화와 '고양이를 부탁해'를 비슷한 시기에 본 이후였다. 이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소녀의 성장기' (정확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여자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물론 영화의 내용이나, 캐릭터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여실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다르다. 그러나 내가 이 2편의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소녀들의 성장' 단 한 가지였다.

소녀는 문자 그대로 어린 여자를 뜻하기 때문에 소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미성숙'이다.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뜻의 소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척이나 재미있는 존재이다.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불안정하다. 동시에 확고한 틀에 넣어지지 않은 자유로운 틀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품고 있다. 누구도 소녀를 영원히 머물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성장의 과정 속에 스쳐 지나가는 곳 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소녀들은 불안정하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그 어느 것도 올바른 해답을 내려주지 않음으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소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인간 운운하는 것은 언제나 우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나이가 들며 '성숙'이란 걸 한다. 성숙이란 말은 묘한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사회에서는 '어른'이 되어야만 내집단 속으로 진입할 수 있고 좋은 삶은 자신의 소녀, 소년 정체성을 버릴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소년과 소녀의 성숙의 과정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때 고양이를 부탁해의 카피를 보고 나는 무릎을 탁 하고 치며 탄성을 질렀다. '20살, 섹스 말고도 궁금한 것이 있' 왜 굳이 '섹스' 말고도 라고 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소년이 어른이 되는 과정은 섹스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남성 작가들이 쓴, 혹은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소년의 성장기의 대부분은 성적인 은유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성숙한 여성의 몸은 그들의 미숙한 욕망의 대상이 된다. 소년들은 몽정으로, 자위로, 때로는 섹스로 여자의 몸을 알게 되고, '어른'이 된다. 아메리칸 파이류의 소년의 성장을 다른 텍스트들에서 '성'이 빠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런 텍스트들의 소년과 현실의 소년은 별다른 괴리가 없다.

그러나 소녀의 경우에는 자신은 스스로의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일상적인 스스로에 대한 대상화에 익숙해

그 불안정한 발랄함에 대하여

저 있다. 따라서 그녀의 손결은 그녀의 것이 아니고 첫남자에게 고이 간직했다가 '바칠' 그 무엇이 된다. 또 소녀들에게 있어서 금지된 욕망은 그녀 자신이 성적인 존재라는 자각을 금지한다.

소년이 어른이 되기 위한 통과례는, 즉 소년의 성숙은 섹스 한번으로 이루어지고 경험한 소년들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띄우며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지만 소녀에게는 섹스도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열쇠가 아니다. 따라서 소녀의 20살은 섹스 말고도 자신을 성숙하게 해 줄 무언가를 갈구한다.

세상은 이런 소녀들의 현실에 냉담하다. 세상은 몇몇의 특정한 소녀에게만 관심있다. 예컨대, 세상은 전지현처럼 똑똑하고 예쁜(진짜 예쁘긴 하지) 발랄한 소녀의 연애에 관심이 있지 고양이를 부탁해에 나오는 구질구질한 일상을 살아가는 소녀들과 판타스틱 소녀 백서의 이니드와 같은 변방의 소녀들 - 예쁘지도 않고, 남자들을 제치고 뽀만콤 똑똑하지도 않은 - 에게는 관심이 없다. 세상은 자신이 만든 걸리쉬를 향유하고 미화한다. 현실과 괴리된 소녀들은 왜곡되고 상업화된 소녀의 이미지와 자신의 괴리를 직감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녀의 '성숙' - 더욱 여자답게, 더욱 조신하게 - 을 충실하게 내면화하는 소녀들은 여자가 된다. 그것은 성숙한 여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을 요한다. 그러나 그녀들이 성숙한 여성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은 그녀를 '미성숙'하다고 이야기 한다.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여성 작가들의 언어는 소녀적 감수성을 가진 성장하지 못한 여자의 이야기로, 여자와 어린이는 항상 세트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어딘가 좀 모자란 여자, 이미 우리 사회는 여자들을 소녀로 머물게 만든다. 소녀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어머니가 되어 또다른 소녀들을 만드는 일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성숙한 여자가 되지 않은 소녀들의 결말은 '사라' 지는 것이다. 판타스틱 소녀 백서의 원제는 Ghost world이다. 소녀는 유령이다. '여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은 소녀들이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숙할 권리는 없다. 소녀 영화의 끝은 대부분 여자가 된 소녀들이 이미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확보한 소년들의 세계에 편입하기 위해 가난한 노력을 하거나 (고양이를 부탁해의 해주와 같은) 결국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 버린다. 이니드는 결국 동그란 가방을 들고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 떠난다. 고양이를 부탁해의 태희도 마찬가지다. 소녀 영화의 엔딩이 오픈 엔딩일 경우가 많은 이유는 결국 현실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여자들이 뿌리내릴 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과 타협하는 건 너무 슬프니까, 적당히 환상을 주고 실낱같은 안도감을 주는 '모험'은 어떤 면에서 더욱 슬프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해서든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나는, 그러나 거부장제가 바라는대로 성숙하고 싶지 않은, 성숙한다고 해도 여전히 미성숙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스스로를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소녀사자, 그녀의 유치한 뽀, 거부장제의 사회가 '미성숙'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또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나는 언제나 '미성숙'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내가 거부장제가 바라는 성숙의 개념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숙을 찾으려 할 때, 소녀와 어른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단절을 메우려 할 때, 나는 어떤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는가. 소녀, 그 불안정한 발랄함은 어떤 모습을 할까.



4명의 여인들의 연애 이야기 - 그녀들이 월담한 이유는?

: Lifestyle로서의 다양한 sexuality 실천에 관한 페미니스트 포럼

5월 13일(목) 저녁 6시 30분 / 공대 A013호

김신현경 (영페미니스트 문화기획집단 '달과 입술' 멤버)
솔라 (연세대 사학과 대학원)
이김학실 (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이갈 (여성주의 자치언론 '두입술' 편집위원)



낭만적 사랑에 집착하는 사회 - 나는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by 솔라

연애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고작 백 년도 안 된다.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쯤부터, 그것도 이국(異國)의 감정을 번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¹⁾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가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녀 사이에는 우정이 성립될 수 없다 느니, 언젠가는 제 짝을 만날 거라느니, 진짜 좋은 사람(대부분 이성을 지칭한다)을 만나면 다를 거라느니, 제대로 된 연애를 해 봐야 한다느니 하는 진부하다 진부한 얘기들이 우리를 어딘가로 이끈다. 어디? 이성애주의적 연애의 세계로!

연약한 여자와 그 여자를 지키는 남자라는 허황되고 유치한 러브스토리의 뮤직비디오,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업 이벤트, 사랑을 얘기하는 온갖 광고·물건들·TV프로그램·인터넷 웹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팔면서 먹고 사는지.

포럼 : 4명의 여인들의 연애 이야기- 그녀들이 월담한 이유는? / 5월 13일 (목) 저녁 6시 30분 / 공대 A013호

연애이야기 - 그녀들이 월담한 이유는?

범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는 연애를 둘러싼 담론들은 한편으로는 천편일률적이면서도 정말이지 너무 모순적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01 - 짝신도 제 짝이 있다

- 네가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위 두 개의 명제는 정면충돌하고 있다. 세상 어딘가에 내 짝이 있을 거라느니 어느 시절의 운명론적 관점이며, 또 연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건 또 뭐냐. 과연 연애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연애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

02 - 연애를 안 해서 외롭다

-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기만 해요

사실 연애를 하는 인연들의 삶이 힘들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친구들을 더 많이 괴롭히는 것 같다.

03 - 진짜로 사랑하면 물질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 그녀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연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것은 적잖은 스트레스 거리이다. 아직도 남자들을 더 압박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남자들이 여자를 위해 돈을 쓴다며 불평하는 소리는 그 경제적 능력에 여성들이 의존하게 되며 그것이 곧 권력이 된다는 것을 가린 채 이루어진다.²⁾

04 - 사랑한다면 성관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은가요?

- 그녀를 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동성애론. 이런 성녀와 청녀의 이분법과 순결함을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들이대는 이중기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갈등이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어떻게 아직도 처녀내경험없는 사람은 싫어'와 '만 남자와 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냐'가 있다.

05 등등등!!!

이 모든 담론들은 대부분 똑같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 여자는 꼭 남자를, 남자는 꼭 여자를 만나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흔히 '배타적'이라고들 하지) 그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상 최고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사회의 기본이며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살짝(사실은 노골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상한 규정이 떠오른다. 스멜스멜~~

1)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pp12~15

2) '전 쇼핑을 좋아하는 명품족이에요. 물론 그런 저를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가 좋답니다. 왜냐하면 전 아름다운니까요.' Cocoon 2004년 5월호, 54쪽. 여성의 '아름다움'과 남성의 '능력'의 교환이 버젓이 재현되는 예는 단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칠칠 맞아서 나중에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살이 찌서 남자는 어떻게 사귄래?" 내가 언제 애인(남편?)이 필요하다고 했나? 내가 언제 소개해달라고 했나? 그리고 내가 이성애자인지 어떻게 확인하지? 내가 안 칠칠맞고, 살이 찌지 않아서 연애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성으로서 자라면서 들어온 연애에 대한 이야기, 주변에서 접하는 연애의 재현들과 마주치면서 나는 '여성스러운 여자'가 되어야 하며, '한 남자의 짝'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 성적인 관계는 오직 그 남자와만 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가능하더라도 나는 그것(성)에 대해 무지해야 한다고, 그리고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이 모든 제한들이 행복이 될 것이라고, 이놈의 '사랑' 얘기는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조건에서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연애를 해야만 우리는 훌륭한 인간이 되는가? 유사 이래 연애가 없던 시절들을 떠올려보라!

위에서 예를 들었던 답론들은 서로 너무나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꺼번에 흥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나는 차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어느 장단에 맞추든 안 맞추든,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명하니 있든 내가 고만하고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내릴 선택은 적어도 이성애

내가 내릴 선택은 적어도 이성애 중심적이어서 여성이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가진 나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쪽은 아니어야겠다고, 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성별이나 섹슈얼리티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해야겠다고,

중심적이어서 여성이자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가진 나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쪽은 아니어야겠다고, 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성별이나 섹슈얼리티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해야겠다고, 또 나 자신의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겠다고, 이 선택을 실천하는 것은, 주위에서 내게 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편견으로 오해받고 비난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넓게 자유로워지며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느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혼자만의 실천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회에서 사랑과 연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물고 늘어져보자.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Face! Women's Desire"를
준비한 이들 (가나다 순)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기획단

강나서영 (경영 01)
글 (수학 03)
몸 (사회 03)
몸들 (신학 04)
생생 (건축 00)
양희현경 (사회 00)
자매 (사회 03)
재주소녀 (인문 03)
뽕 (사회 03)
피페 (생화학 02)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 행복한 여성주의 제16대 총학생회

고동 (사회 00)
고래 (교육 02)
모란 (인문 01)
섬 (물문 00)
얼 (사회 01)

Special Thanks to :

김현미 선생님 / 이갈 / 매니 / 주은 / 독지 / 여광 / 아생씨가지 / 오늘 / 운 / 술래 / 루미 / 독 / 바아늘
그 밖에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신 모든 페미니스트 언니들께 ^^